

와일드푸드축제 막 올라

제6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즐거움에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2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 선정 및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한 와일드푸드 축제는 완주군 대표 마을밥상 로컬푸드 마을음식, 한우음식·야생음식·이색음식 등 와일드음식과 체험, 다양한 전시·공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축제가 가족, 연인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인바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와일드 음식·체험 등 다채

당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올해는 통합콜센터, 셔틀버스 확대 및 축제해설사 배치, 컴퓨터 공간 확대, 물품보관소 및 카트대여소, 마을음식안내소를 운영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계란껍질박제, 와일드수상 즐다리기, 물놀이터, 추억의

7080 봉숭아학당, 고깃병으로 물고기잡기, 물고기 통구이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한국마사회에서 주최하는 '완주 말 문화 축제'도 축제기간과 연계돼,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보완해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업그레이드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축제장을 찾는 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에 목재산업 주역들 모였다

담당자 워크숍 성황리 열려 정책 공유·발전방안 모색

2016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이 22일부터 1박 2일 간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목재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과 목재문화진흥회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2일 산업과 수급, 바이오 목재산업분야의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목재산업 육성 정책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과 벌채 관련 교육에 참여했으며 "숲과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23일은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DIY 체험의 시간을



2016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갖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날 자리를 함께 했던 황정수 군수는 "목재산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이 자리가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일으키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을 목재산업의 주역으로 키우며 6차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도의 82%가 산림인 무주군

에서는 한 해 3만 7천여 톤의 원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는 제재와 펄프, 천마와 표고지목 등의 소비재로 쓰이는 동시에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주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재펠릿 공장에서는 연간 7천 5백여 톤의 펄릿을 생산하고 이를 위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지진대비 매몰자 구조훈련 실시

무진장소방서 119구조대는 22일 청사 내 훈련장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건축물 붕괴 시 매몰자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이 발생되어 도로가 파손되고, 건물에 붕괴됨에 따라 다수의 인명이



건물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하여 각종 도시 인명 탐색장비 및 유압 콘크리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신속한 출동 및 대처요령들을 숙달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5.1,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도내까지 미치고 있다.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들을 미리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조용주 서장은 "도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70%를 넘어 대형 지진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도민들은 지진 발생 대처요령 매뉴얼을 숙지하여 행동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소규모 보존 부적합 균유재산 매각

세외수입 증대 기여

진안군은 대부 중인 일반재산(균유지) 가운데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현재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6,148필지 288만2,000㎡이며, 이중 대부재산은 836필지 92만4,000㎡로 주요 매각 대상은 도로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으로 보아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최대 폭 5m이하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등에 대해 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이달 말까지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도시관리계획상의 저축

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일체 조사하고, 실제 토지 이용현황, 향후 활용도 등을 현장 조사 후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 매수 희망자에 한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나 공공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균유재산을 관리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재산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진안군은 지난 21일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은 '일상속의 생활 안전'이라는 주제로 독거노인관리사, 복지도우미, 부녀회원, 통·리·반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보행과 교통, 전기,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였으며, 실제 응급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안전의 중요성과, 생활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더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규제신고센터 운영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무주군은 이달 말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청 규제개혁 담당 등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직접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각종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과정은 불합리한 법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공공부분의 잘못된 관행,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각종 규정,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온라인 상(http://www.muju.go.kr-알림마당-행정정보)에서도 규제

개혁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http://www.better.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http://www.osmb.kr)의 내용을 함께 담은 부채를 제작·배포하는 등 규제신고의 접근성과 실효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무주군 기획조정실 김정미 담당은 "규제신고 방법을 공유하며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는 모두 11건으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관련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벼짚환원사업 시행

청정환경 지키고 고품질 쌀 생산 기대

진안군은 22일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지력이 떨어진 농지의 농토양 지력증진을 위해 벼짚환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0.1ha 이상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농지에 벼짚을 잘게 잘라 경운작업이 완료되면 11월말까지 현지조사 후 ha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총 828농가, 735ha 신청이 완료되었다. 벼짚환원사업은 지력이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한 농에 벼짚을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벼의

생육을 활성화하여 병해충을 방지해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질 좋은 쌀 생산에 효과가 있다. 군 관계자는 "벼짚을 논에 사용하는 것이 양질의 유기물을 토양에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참여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청정환경 지키는 물론 생산비 절감, 질 좋은 고품질 쌀 생산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장수 장계주민자치위, 행복홀씨 입양사업 전개

장수군 장계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원영)는 22일 장계면 소재지 일원에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회와 장계면사무소 직원 등 33명은 장계시장과 주요도로변, 하천 등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송원영 위원장은 "앞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해 깨끗하고 살기좋은 장계면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사 박차

내년 3월 개교

완주군이 예비 귀농인을 위한 거주형 영농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내년 완공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6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산면 상거리 일원에 신축 예정이다. 예비 귀농인이 1년간 완주에 체류하면서 영농을 배우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과 영농

시설장을 갖췄으며,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부지면적은 3,478㎡, 주택은 2층 연립주택(746.5㎡)으로 18평형 6세대와 22평형 4세대로 구성된다. 또한 2,200㎡의 영농실습장을 갖추고 있다. 강경석 과장은 "연간 200시간 이상의 영농 교육을 준비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멘토와 연결하는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주는 맞춤형 영농교육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지역현안 해결 발 빠른 대응

국회 방문해 국도개량 사업 예산 증액 건의

장수군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 장수군청 한국회 기획조정실과 사업관련 부서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의원과 박용진 의원을 만나 2017년도 추진사업인 장수~장계간 국도개량 사업의 국회심의단계 예산증액과 입실~장수간 국도 개량사업의 실시 설계비 예산확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8년도 사업으로 산서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조신마을 앞 국도 선형 개량 사업 등을 건의했다. 장수군은 앞서 6월과 8월 국회를 방문해 2017년도 예산 요청과 풍력발전단지 조성 문제 등을 건의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저지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도서관

무주국립관리소 자생 버섯 무상양여

무주국립관리소(소장 김중세)는 정부 3.0 서비스 일환으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립관리소에서 자생하는 버섯(송이, 능이 등)을 국립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양여 한다고 밝혔다. 국립보호협약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산불예방,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보호활동 지역에 생산되는 입산물(송이, 능이, 숲 기르기 부산물 등)을 양여 받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립관리소는 2016년 상반기에 고로쇠 수액을 양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약 2억1백여만원을 기여한 바 있으며, 이번 버섯 3천4백여만원 규모의 주민 소득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국립관리소 관계자는 "숲 기르기 부산물(벌갈)을 추가적으로 양여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산림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업인 대상 후보자 접수

장수군은 제2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장수군 농업인대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시상부인은 과수부문, 축산·임업부문, 채소·특작·화훼부문, 식량작물부문, 수출·가공부문 등 5개 부문이며 후보자 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업에 종사하며 부문별 업적이 탁월해 농업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부문별 1분야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추천자는 읍면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및 20인 이상의 농업인의 연서를 받아 각종 증빙서류를 갖추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 장애인 문화콘서트 성료

장애인과 완주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 문화콘서트가 장애인,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둔산공원에서 성료됐다. (사)완주군 장애인연합회(회장 장현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장애인에게 보다 더 가까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이를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참석 장애인들은 공연 내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공연은 초대가수 진성, 오로라, 금잔디, 진시몬 등이 출연해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경찰, 판소리 한마당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22일 무주서 4층 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소리 우리 삶을 바로 알기 위한 판소리 한마당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청된 전북도립국악원 김연 교수는 사절가·독도는 우리말 노래를 판소리로 소개하고 2시간에 걸쳐 진행한 강연에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연 교수는 "경찰서 하면 딱딱한 느낌이 들어 재미와 흥을 돋워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규 서장은 "우리의 히로메라리 모두 들어 있는 소리의 한 대목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보존하여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